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8. 19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정 / 0117465** / 2024-08-27 10:49:27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8/12~8/16)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주요 이벤트 및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BOJ 전 관계자의 비둘기 발언으로 인한 엔화 약세에 연동되며 달러/원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뉴욕 연은의 중기 기대인플레이션 급락에도 주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관망세에 달러 약세폭이 제한되며 소폭 하락
- 중반, 미 7월 PPI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점이 연준의 빅컷 기대로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가중
- 후반, 미 소매판매 개선 소식에 경기침체 불안감이 진정된 측면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추가 하락 후 1350원대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주택지표 부진에 따른 시장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탄력 받으며 달러 약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시카고 연은 총재의 긴축에 대한 필요 이상의 확대 가능성 경계 및 소비심리 지표 개선 등에 의한 위험선호 영향 등도 달러 약세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에 대한 경계감 및 수급상 저점 인식 요인, 중동 긴장 지속 요인 등이 하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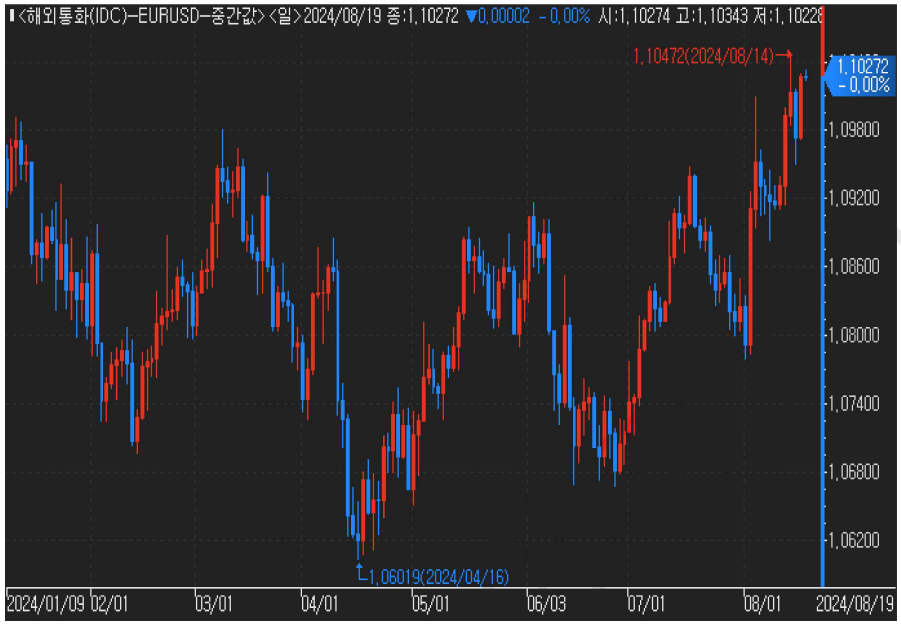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65.5	1,372.8	1,357.3	1,357.6	-7.9

예상거래범위
1,340원 ~ 1,355원

이*정 / 0117465** / 2024-08-27 10:49:27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엔•유로화 동향 (8/12~8/16)



유로화 동향

- 주초, 최저 수준을 기록한 미 기대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며 출발. 이어 예상을 하회한 미 PPI 데이터에 안도감이 유입되며 달러 약세가 나타남에 따라 추가 강세를 시현
- 중반, 유로존 2분기 실질GDP성장률 잠정치가 플러스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강세 흐름이 지속
- 후반, 미 소비지표 호조와 실업지표 개선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는 약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주택건설 업황 악화에 따른 연준 피벗 전망 강화과 글로벌 약달러에 강세 보이며 1.10달러선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16	1.1047	1.0910	1.1027	+0.0111

엔화 동향

- 주초, 미 정부의 항공모함 파견 소식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에도 미 PPI, CPI에 대한 경계감 속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 PPI 둔화로 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에 달러 대비 강세 전환
- 중반, 예상에 부합한 미 CPI에도 주거비 물가가 급등한 측면에 의해 연준 빅컷 전망이 약화되자 약세로 재전환
- 후반, 미 소매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리스크온 분위기 속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미 주택지표 부진 영향 속 달러 약세와 미 국채금리 하락에 강세 보이며 147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7	149.4	146.1	147.6	+0.9

이*정 / 0117465** / 2024-08-27 10:49:27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12~8/16)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연준 이사 미셸 보먼의 실업률 관련 4.3% 수준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언급 영향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강화 등으로 장기구간 중심 하락 출발. 이어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외국인의 3년, 10년 국채선물 모두에 대한 매수세 강화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중반 들어, 7월 미 생산자물가 감소 영향이 반영되며 미 국채 강세에 연동 움직임 속에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
- 후반 들어, 미국 7월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기재부의 국내 경기흐름에 대한 평가가 '견조한 수출과 제조업 호조 속에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전망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국내 수출입 지표가 긍정적인 가운데 반도체 기술주 등에 대한 대돌림 강화 속에 상승 출발. 이어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지정학적 불안감이 증폭한 요인 등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었음에도 소폭 강보합 시현
- 중반 들어,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완화된 국면으로 발표됨에 따라 외국인의 긍정적 순매수 유입과 전일 뉴욕 증시의 기술주 강세 등을 반영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 후반 들어, 미 7월 생산자 물가 감소세를 반영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흐름 속에 경제지표 관련 침체 공포가 크게 완화되며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큰 폭 상승 흐름 나타내며 마감

이*정 / 0117465** / 2024-08-27 10:49:27